

대한광장

엽기살인 막을 '도덕 리더십' 필요



설 동 훈
전북대학교수·사회학

9·11테러에 버금가는 연쇄 살인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20대 여성 연쇄 살해 사건이다. 도덕규범이라는 한국인의 마음 속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두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야수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야수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이지만, 그 살인자들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요즘 문화의 핵심 코드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엽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을 납치하여 강간한

후 무참하게 살해하는 내용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몇 년 전에 제작된 한 국산영화는 외판 산장의 주인 가족들이 투숙객들을 연쇄 살해하여 암매장하는 과정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훔치거나, 차량번호판을 바꿔 달고 살인·강간·강도질을 하는 내용이다. 가상 세계이지만 살인을 학습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컴퓨터 게임이 하나 둘이 아니다. 동영상 시청자나 영화 관객, 또는 컴퓨터 게임 이용자는 영상 속 엽기적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흥미거리로 받아들인다.

지나친 소비문화등 존엄성 파괴

그러나 이러한 매체는 알게 모르게 인명 경시 풍조, 다소 과장해서 말하면 '살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배양한다. 그리고 도덕적 자제력을 상실한 극소수 미치광이 인간이 자신이 학습한 엽기 문화를 실천에 옮긴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덕적 규제의 끈을 끊어 버렸는가? 달리 말해, 왜 그

러한 미치광이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그것은 현대문명의 병폐 때문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반을 둔 대중사회에서 인간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나 내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은 있지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에서, 모래알처럼 고립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기 쉽다.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공업화·도시화의 결과, 한국사회에서도 이웃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대신 나와 내 가족의 이익만을 앞세운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로 대표되는 도시적 생활양식은 고립된 개인, 이기적 개인을 양산하였다. 최근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외양을 중시하여 구분별하게 과소비를 일삼는 소비문화가 일탈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호황을 구가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는 젊은이 중 일부는 돈을 강탈할 희생양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일부 여성들은 소위 '원조교제'를 통해 그 빚을 갚으려 시도한다. 이러한 일들은 궁지에 몰린, 나약

한 이기주의자들이 택하는 전형적 행동양식이다.

정치인 '새 공동체 규범' 공약을

문제는 이기주의자들의 엽기적인 행동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 연쇄 살인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이미 몰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총체적 무규범상태'를 극복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한국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9·11테러 직후 미국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합하며 위기수습에 나섰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무너진 과거 도덕규범의 잔해를 치우면서, 21세기 시대 정신에 걸맞은 도덕규범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가들이 진실로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한 단계 수준 높은 도덕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들 모두가 자기 말의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도덕적 리더십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자.